

“일주일 내내...” 단연컨대 KBS 드라마 전성시대



“일주일 내내 KBS 드라마만 보게 될 줄이야”

마녀의 법정·매드독·고백부부·황금빛... 등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까지 높아 호평 얻고 있어

시청자들의 이런 반응은 과장이 아니다. K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들이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까지 높아서 화제다. 성적이 영 좋지 않았던 후속작들을 뒤로하고 얻은 결과라 더욱 뜻깊다.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을 시작으로 수목드라마 ‘매드독’, 금토드라마 ‘고백부부’,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까지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처음 방영된 ‘마녀의 법정’에는 이른바 한류스타가 없는 데다 흔히 볼 수 있는 수사극이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동시간대 시청률 꼴찌였던 ‘반세기 소녀시대’의 후속작이어서 전작의 흥행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먼저 방송되고 있던 SBS ‘사람의 온도’가 감성 멜로로 단단한 시청층을 확보한 터라 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분했다.

첫 방송이 6.0%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출발했지만 몰입도를 높이는 빠른 전개와 개성 강한 캐리

터들의 이야기는 단번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회에서 끝바로 9.5%를 기록했다. 4회에선 12.3%를 기록하며 경쟁작들을 제치고 유일한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극은 여성야동범죄전담부(여야부)를 배경으로 성범죄를 현실감 있게 다루고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형량 등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일침을 날리기도 한다.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통쾌한 전개와 ‘사이다’ 검사 마이름(정려원)의 활약 등은 극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1%대라는 공중파 드라마 기준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해 굿을 맞았던 수목드라마 ‘펜을 후속작으로 ‘매드독’이 출격했다. 연출을 맡은 황의경 PD는 방송 전 제작발표회에서 전작의 실패를 언급하며 “애석하고 아쉽다. 역시 시청률 예견은 쉽지 않다”며 부담을 드러냈다.

하지만 ‘매드독’은 국내 드라마에서 본 적 없는 보험사기 조사극이라는 장르로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다. 케이퍼 무비를 연상시키는 소재는 물론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조화가 극을 힘 있게 이끈다. 특히 악연으로 얽혔지만 묘한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유지태와 신에 우도환의 브로맨스는 매 회 화제를 모은다. 유지태의 명물적인 연기력과 우도환의 밀리지 않는 존재감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동시간대 지상파 드라마와 비교해 시청률은 꼴찌지만 SBS ‘낭인’이 잡은 사이에 MBC ‘병원선’ 역시 1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라 역전도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금, 토요일은 ‘고백부부’가 책임지고 있다. KBS 외에 지상파에선 동시간대 금토드라마가 편성돼있지 않지만, 다양한 인기 예능들이 포진해 있는 시간대에 선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백부부’는 웹툰 ‘한번 더’를 원작으로, 결혼을 후회하는 38세 부부가 20세 대학생으로 돌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다.

독박육아에 지친 진주 역의 장나라, 사회생활에 쪼들린 반도 역의 손호준이 캐릭터에 100% 몰입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매 회 코믹과 감성을 버무린 연출 덕분에 ‘짹짹 드라마’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지난 13일 첫 방송에서 4.6%를 기록했던 시청률이 극적으로 상승하진 않았지만 매 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화제다.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으며 2017년 최고 시청률 경신을 눈앞에 뒀다. 극은 후속작을 벗어나고 싶은 지안(신혜선)이 가까워진 기회를 얻었지만, 모든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며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지안을 병행하게 되던 가짜 오빠 도경(박시후)이 해맑은 지안의 미소에 ‘심쿵’하는 장면이 담긴 지난 16회는 시청률 36.0%를 기록하며 전작 ‘아버지가 이상해’의 최고시청률 36.1%에 바짝 다가갔다.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지안 역의 신혜선이 섬세한 연기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50부작 편성임에도 늘어지지 않는 숏가쁜 전개는 시청자들을 주말 오후 TV안으로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비가 온 뒤엔 땅이 굳어진다라고 했던가. 단연컨대 KBS 드라마 전성시대.

“이게 우리 색깔”... ‘컴백’ 포맨, 대체불가 애절함



다행히도 제대 2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팬들 앞에 서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용재는 “3년 5개월 만에 앨범을 내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욕심을 내 봤다”며 “포맨 표 발라드를 들고 나왔다. 포맨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음악으로 슬픔을 느끼실 거라 생각한다. 기대했던 것보다 음원 성적이 잘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포맨이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다. 포맨이라 가능한 애절한 발라드가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포맨은 25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리아트홀에서 정규 6집 ‘리멤버 미(REMEMBER ME)’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멤버 김원주가 군복무를 하는 등의 이유로 포맨은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다.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 컴백을 준비했고 정규앨범을 내었다.

지난 8월 9일 23사단 분부근무대 군악대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김원주는 “포맨으로 빨리 컴백하고 싶었

다. 다행히도 제대 2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팬들 앞에 서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용재는 “3년 5개월 만에 앨범을 내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욕심을 내 봤다”며 “포맨 표 발라드를 들고 나왔다. 포맨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음악으로 슬픔을 느끼실 거라 생각한다. 기대했던 것보다 음원 성적이 잘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포맨의 정규 6집은 타이틀곡을 포함한 윤민수 프로듀서의 자작곡 5곡과 김원주, 신용재의 자작곡 및 솔로곡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온라인 이용자를 위해 특별히 전곡의 인스트루멘탈(instrumental)을 공개하기로 해 음원사이트에는 지난 24일 총 24곡이 공개됐다.

타이틀곡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믿지 못하고 돌아선 사랑을 다시 잡고 싶다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특히 클리파스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애절한 고음은 리스너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신용재는 “윤민수 선배님이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를 만들면서 ‘이건 너 밖에 못해’라고 하셨다. 정말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는 내가 불러봤던 노래 중에서도 고난이도에 속하는 노래다. 그래서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연습을 하면서 이 고음을 내다보니 묘한 쾌감이 있었다. 열심히 관리해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고 싶다”고 덧붙였다.

타이틀곡 외에도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리브송 ‘나의 이야기’, 사랑에 빠진 마음을 심장 소리에 빚댄 발랄한 분위기의 ‘중(Fear, Ance)’,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해줄걸’ 등 윤민수의 자작곡이 다수 실렸다.

또 후회 없는 이별을 하고 싶다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신용재의 자작곡 ‘시간을 걸어서’와 이별 후에 혼자인 지금이 좋으며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사실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김원주의 자작곡 ‘혼자가 좋아’가 수록됐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의 슬픔을 담은 김원주의 솔로곡 ‘다시’, 소울풀한 분위기의 신용재 솔로곡 ‘리멤버 미’, 포맨의 테크니컬한 장편으로 음악적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백 홈(Back Home)’ 등 다양한 곡들로 앨범이 채워졌다.

포맨은 “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우리의 음악을 많이 잊으셨을 것 같다. 사랑 받았던 노래들이 항상 슬픈 발라드였던 만큼 우리다운 노래를 들고 나왔다. 이게 우리의 색깔이자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장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위너 ‘꽃보다 청춘’ 11월 7일 첫방송

‘신서유기4’에서 보여준 송민호의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에 힘입어 성사된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위너’가 오는 11월 7일 오후 10시 50분 첫 방송한다.

tVN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위너’는 지난 8월 종영한 ‘신서유기4’에서 그를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소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 당시 제작진이 준비한 쉽지 않은 게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일명 ‘송기타’로 등극한 송민호는 제작진에게 그를 위너의 ‘꽃청춘’을 소원으로 제안, 이를 제작진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강승윤, 이소훈, 송민호, 김진우 네 명으로 이루어진 그를 위너는 이번 ‘꽃청춘’ 시리즈 출연으로 그동안 무대 위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열혈 청년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낼 예정이다.

그동안 출연진들조차 언제, 어디로 출발할지 모르게 떠나는 것이 컨셉이었던 ‘꽃청춘’ 시리즈의 특성상 이번 ‘꽃보다 청춘 위너’ 또한 출발을 가능할 수 없었던 상황. 이후 ‘꽃청춘 위너’가 방송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위너와 그런 위너를 속이기 위한 제작진의 치밀한 계획이 재미를 줄 전망이다.

한편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위너’의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제작진이 후주에 도착한 위너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호주를 배경으로 한 가수 위너의 예니지 남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빼빼용 복장으로 사진을 찍은 멤버들의 모습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또한 한층 뜸해있는 위



너 멤버들의 모습을 통해 ‘꽃청춘 위너’를 손꼽아 기다려온 시청자들에게 기다림을 채울 만큼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청춘 위너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서유기 외전 - 꽃보다 청춘 위너’는 오는 11월 7일 오후 10시 50분 tVN에서 첫 방송된다.

‘범죄도시’, 17일 연속 1위... ‘타짜’ 뛰어넘을까

‘범죄도시’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집산망에 따르면 영화 ‘범죄도시’가 지난 24일 하루 동안 10만 106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517만 632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로써 ‘범죄도시’는 17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청불 한국영화 역대 흥행순위 중에서도 TOP 4위인 ‘타짜’(568만명)가

지 넘볼 수 있을지 아목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도시’의 뒤를 이은 재난영화 ‘지오스’의 경우는 이날 하루 동안 5만 574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80만 338명을 달성하며 2위에 올랐다.

김구의 청년 시절을 조명하는 조진웅 주연의 내장 김창수는 이날 하루에 2만 4926명의 관객이 날라, 누적 관객수 30만 8497명을 기록하며 3위에 등극했다.

또한 김훈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남한산성’이 일일 관객수 1만 332명, 누적 관객수 379만 400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김스래’: 골든 서클’은 이날 하루 동안 7164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493만 567명을 기록하며 5위에 올랐다.

5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꺾인 기세로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음력 9월 7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황소** 36년생 건강을 챙겨라. 48년생 산행을 삼가라. 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2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4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사슴**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황해의** 38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50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2년생 계약운이 있다. 74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86년생 꿈을 접지마라.



▶**사슴** 39년생 미련을 버려라. 51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63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5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 87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황해의** 40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2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4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6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8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황해의** 41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3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5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7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9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황해의** 4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5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9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황해의**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뜻밖의 행운이 온다.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황해의** 32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 4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5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6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황해의** 33년생 개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69년생 손풍에 뜻을 높이 올린다. 81년생 욕심을 버려라 뜻이 이룬다.



▶**황해의** 34년생 외출을 삼가라. 46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5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0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2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황해의** 35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7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9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1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3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